

2026년 성결인들의 ‘즐거운 여름 신앙생활’

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성결인들의 여름 이야기

500여 청소년 참여, 말씀의 힘으로 회복



‘ReBom(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수련회는 전국에서 500여 명의 청소년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련회 기간에는 주제 강연과 공연 프로그램, 체험활동, 공동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일정이 진행되었다. 저녁 프로그램에는 최현 목사(일산증가교회)와 최창수 목사(수지에본교회)가 강연자로 참여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서종현 선교사(ETM선교회 대표)가 강연을 진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번 2026년 수련회는 강연과 문화공연, 체험활동을 균형 있게 운영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또래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좋은 평가다.

청년부, ‘성청연합수련회’에서 신앙과 사명 재확인



총회 청년부와 성청사역위원회가 주관한 성청연합수련회는 올해도 8월 15일 성결대학교에서 개최됐다. 91개 교회 1,02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 공연과 팀워크숍 등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로, 세상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SI G의 콘서트, 홍정수, 이종화 목사의 강연 등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한 관계자는 “예성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붙들고, 교회와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한 영향력’ 행사하는 남전도회전국연합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도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화리조트 대전 파로소에서 하계수련회를 갖고 남전련 본연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다졌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충청지역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큰 장마비로 당초 예상 인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려와는 달리 2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큰 은혜를 나눴다.

기간 중 진행된 세미나는 서울신대 차준희 교수가 ‘중(中) 기(氣) 도(道)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차 교수는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바람 불어올 때 기도하며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 막힌 길도 기도하면 뚫린다. 없는 길도 생긴다. 기도는 길을 만든다.”며 풍(風) 기(氣) 도(道)를 강조하고, “내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내 몸이 기억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70여 여전도회 회원들 ‘침과 회복 영성 충전’



가장 먼저 여름행사를 진행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충남 천안시 소재 스피러스 리소에서 ‘부르짖어 쉼을 터뜨리다’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개최했다. 임원진과 준비위원들의 세심한 준비와 계획으로 해마다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에도 36개 교회에서 270여 명의 성결여성들이 참여해 리조트 감당을 가득 메우며 은혜롭게 개최됐다.

이 같은 기도에 부응하며 감사신용백 목사(시냇가푸른나무)는 심령을 울리는 말씀으로 성결여성들의 영적 갑갑함을 채워주었다.

신용백 목사는 ‘이 여인들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 목사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의 헌신을 조명하며 오늘날 여성 지도자들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했다.

400여 목회자 가족, 여수 밤바다서 영성과 쉼 얻어



2026년 목회자 하계수련회는 ‘예수 안에 쉼,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주제로 여수 시 소재 베네치아호텔과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수련회는 예배와 말씀, 기도뿐 아니라 지방회별 행사와 친교를 통해 목회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교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예수 안에 쉼,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주제처럼 목회자들이 바쁜 사역의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회복과 새로운 힘을 얻는 데 의미를 더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목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바탕으로 각자의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 복음 전파와 교회 섬김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총회장 이종만 목사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목회자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여수의 밤바다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로회전국연합회 전국대회 통해 신앙본질 회복



가장 마지막으로 여름행사를 마친 장로회전국연합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진행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중복음의 증인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예배와 세미나 등을 통해 선교 21세기를 향한 장로들의 자세를 되새기고 신앙과 삶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중 열린 세미나에서는 ‘5無 교회가 온다’의 저자이며 전략브랜드 회사 인권 엔프터너스의 확인권 대표가 ‘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공지능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심어주었다. 저녁시간에 진행된 특강은 성결대 신학대학원장 윤영훈 교수가 나서서 ‘새로운 노인이 온다’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회장 이천 장로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영적전쟁이며 이는 성령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말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회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총회장 서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전국교회 동역자님들과 국내외의 모든 성결의 지체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연일 이어졌던 여름철 무더위가 서서히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교단 정기총회 이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105회기 첫번째 총회장 서신을 전합니다.



첫째, 일본 교단 신학교와 선교지 교회에서 실행위 및 기관장정책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제105회기 정기총회를 마친 후 총회 실행위원회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련회를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교토와 오사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신학교와 신대원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건축하여 사역하는 잘 감당하고 있는 강박형 선교사, 강건형 선교사 사역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축복하며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두 선교사님과 성도들은 교단 차원의 이번 방문이 착박한 일본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에 큰 힘과 위트가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를 동안 두 교회에서 가진 회의에서 제105회기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을 논의하고, 주요사업과 정책과제들을 점검하였으며, 교단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들을 서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5월 정기총회 이후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05회기 목사단수식은 정기총회를 마친 후 지난 5월 23일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교단의 미래를 이룰 24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안수자 숫자가 늘어 감사했습니다. 총회장 초청 평신도 협력기관장 간담회, 주요 기록전문 기자들을 초청 신인총회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임기 동안 추진할 성결교단의 정통성과 성결 정신 계승, 교단 내 화합과 통합 강화,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복지 체계 마련, 시대 변화에 맞춘 성장 및 부흥 전략 수립, 지속 가능한 교단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도 질의 응답 방식으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각 기관 여름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남전도회전국연합회의 하계수련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8월에는 각 기관 별 여름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예성 전국청소녀연합수련회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성결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예성 부흥사회가 주관한 여름산상부흥성회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어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성청연합수련회도 8월 15일 같은 장소인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장로회전국연합회 전국대회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교회 장로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명을 재확인하고, 연합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목회자 부부 하계수련회는 아름다운 여수의 자연환경과 특급호텔에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수 안에 쉼, 성령으로 충만’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부부로 구성된 찬양팀의 인도와 뜨거운 감사의 열정 속에 저녁마다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며 목회자부부들의 영적 재충전과 쉼, 전

인적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넷째, 총회장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단 산하기관의 점검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여 시간 동안 인수위원들은 산하기관의 고충을 듣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분과 회의와 전체 토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실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후 총회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제105회기 총회장 인수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이 교단과 상호 소통과 협력 속에 개별적 사업추진이 아니라 교단발전을 위한 통합적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성결신학원 이사장 인준과 산하기관 이사 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성결신학원 이사장 후보로 김성진 이사를 선출하여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임원회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성결신학원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성결신학원 이사를 비롯한 총회성결교신학교 이사장, 유지재단 이사, 은급재단 이사, 성결신문사 감사 등 산하기관 임원 파송도 결의되었습니다.

여섯째, 교단의 발전을 위한 사역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교120주년을 맞아 국내지방회와 해외지방회 결연을 통한 함께하는 선교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진행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국 CCT교단과 MOU를 체결하고자 총무와 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교단간 협약이 체결되면 태국선교사들의 비자문제 해결을 통한 사역에 힘이 될 것입니다. 총회와 농어촌부가 국내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시설개

선을 위한 ‘함께 세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설수리가 필요한 10개 교회를 선정하여 재정과 인력 지원을 통해 교회가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국선위, 부흥사회, 이음목회 등 교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 단체가 협력의 손길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예성이 함께 상생하는 부부멘트가 일어 나길 기대합니다.

저는 제105회기 총회장으로서 우리 예성교단을 다시 든든하게 세워가는 재도약의 변화를 목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사역으로 그 일을 이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은급지원을 통해 복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예성의 이름으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정치 대신 협력과 존중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사역하는 현장에서 성실히, 정직하게 복음사역을 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감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믿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교회, 예성의 새 역사를 이루는 또 한번의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종만 목사